



하늘과 땅을 잇는 거룩한 이주, 온 누리 가득한 성탄의 기쁨

국내 거주 이주민이 250만을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도 이전보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주민이 국가 인구의 5%에 이르면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는데 올해 10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35만으로, 이주민 비율이 인구의 5%에 근접하고 있다.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존중, 협력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사회통합 방향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시점에 '2023년 글로벌 엘림 다문화컨퍼런스'가 최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선교센터에서 열렸다.

(재)글로벌엘림재단이 주최하고 엘림다문화센터가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포용과 협력 (다양성의 가치와 공존의 길)'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이슈&사례 발표 등을 통해 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엘림다문화센터 이병인 센터장은 "갈수록 다문화가족과 이주민이 늘고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의 대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법을 만드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교와 전문기관이 있고,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실무자가 있는데, 이 3박자가 유기적으로 잘 협력이 되어야 한다.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아직 부족하고 더 많은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와 함께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들을 포용하고 진정한 이웃으로서 대하며,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세상,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희망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글로벌엘림재단이 앞장서서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글로벌엘림재단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설립되었다. 외국인 주민과 기관 및 자치단체와의 연계 활동, 한국어 교실 및 마약범죄 피해 예방교육 등의 교육활동, 다문화행복꾸러미, 자조모임 지원, 긴급구호 및 통역서비스 등의 생활지원, 결핵검진 및 예방활동 등 의료 연계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청년들에게 장학금 및 단기숙소를 지원하고 언어권별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등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글로벌멘토링센터, 각종 재난과 사고·상해·전쟁 등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상담하고 치료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 서비스를 진행하는 글로벌트라우마센터가 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12월, 우리는 소외된 이들이 없는지 주변을 더욱 돌아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의 이웃으로 찾아온 이주민들을 기억하여 사랑과 환대로 섬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몸소 보여주어야 한다. 높고 높은 하늘의 위대함을 떠나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은 그야말로 '거룩한 이주'이다. 하늘에서 땅으로 '이주'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세상의 이주민들에게 소망을 준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주를 통해 일하시고, 그분의 기적을 보여주신다.

디아스포라신문은 이주민 곁에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최근 이주민 사역 소식을 모아 12월호에 담아보았다.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에 대한 포용·공존·협력 필요해”

글로벌엘림재단 ‘2023년 글로벌엘림 다문화컨퍼런스’ 개최



▲ 이병인 글로벌엘림다문화센터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년 글로벌엘림 다문화컨퍼런스’가 11월 14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세계선교센터에서 열렸다. (재)글로벌엘림재단 권일두 상임이사는 환영사에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다문화화되면서 서로 다른 화와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자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이 다문화컨퍼런스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의 포용과 협력, 다양성의 가치와 공존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글로벌엘림재단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는데 계속해서 다양한 접근과 따뜻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저는 저보다 10살 많은 선배들이 과거 중동에 나갔을 때의 고초들, 또 그전에 독일 간호사와 탄광노동자, 별목공으로 나간 선배들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가족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함께 가야된다는 생각을 늘 갖

고 있다”며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다문화 관련 법안을 활용한 다문화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시면, 입법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겠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로 전진하면 좋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사회를 맡은 엘림다문화센터 이병인 센터장은 개회 선언 및 주제 발표에서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국민의 다문화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며 “2021년 발표된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지만, 성인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청소년과 대조적으로 성인들은 고정관념 및 차별과 거부 등 정서 측면의 수용성이 높고, 그 뒤를 이어 세계 시민 행동 의지도 높은 편인 반면, 교류 행동 의지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고 말하고 “이제 250만 다문화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들을 포용하고, 또 어떻게 이들과 협력할 것인지 다양성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 다문화 컨퍼런스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글로벌엘림재단 구영아 사무국장의 환영사 및 재단 소개 후 재단 홍보 영상 시청 순서가 진행됐다.

발제는 한국청소년행복나눔 이사장 문용선 박사, 인하대 이민다문화학과 겸임교수 채보근 박사, 명지대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국제교류경영 전공 주임교수 정지윤 박사,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 대표 문창선 선교사가 전하고, 이슈&사례로 라파엘클리닉 남명부 국장,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유진 센터장, 필리핀 마르나타 신대원 정재용 박사가 각각 발표했다.

문용선 박사는 ‘외국인 국내 거주에 대한 법률적 문제와 제안’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배경과 목적, 득과 실 등을 전하면서 현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박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 수요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활성화되지만, 그 반대로 권리나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차별이 생기면서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 미적용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E7-4의 분기별 쿼트가 170여 명에 불과해 연 6만 명에 달하는 고용허가제 쿼트에 비해 매우 적고, 사업장 변경 제한은 미등록 체류자를 양산하게 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용선 박사는 특히 “고용허가제의 현황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변경 제한이며, 한국이 비준한 국

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금지협약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임금, 고용 안정,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공정한 기회 보장, 노동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국가와 기업은 보장해야 한다”면서 김주영 의원에 관련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채보근 박사(전 한국이민재단 본부장,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위원)는 ‘외국인 간병인력 수용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의 간병인력제도 및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의 간병인력제도를 소개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사회 간병인력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열악하고, 과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 진출과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로 간병인력의 상품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박사는 이날 “법적 규정 측면에서 간병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동에 대한 법적 지위와 노동력 보장이 부재한 상황이고, 교육적 측면에서 간병인력에 대한 교육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공식적인 규정을 강화하고 현장별 지침을 일원화하여 간병인 업무에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한국사회는 산업화, 고령화로 돌봄노동의 필요성은 증가하나 내국인의 간병업무에 대한 기피현상을 증가하고 있어 간병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박사는 대체인력으로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을 위한 제안으로 “①비자 자격이나 거주자격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을 확보하고 ②교육과정의 현실화

KOREA CRISIS MANAGEMENT SERVICE

사단법인 한국위기관리재단
선교사 위기관리와 재외국민 보호를 지원하는 외교부 등록 사단법인

위기예방 활동 (Pre-Crisis Mode)

- 최신 위기정보 수집·분석 제공
- 위기관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위기대응 훈련 (Crisis Response Training)

- 권역·국가별 위기관리 세미나 & 워크숍
- CRT (Crisis Response Training)
- SYIS (Sharpening Your Interpersonal Skills)

위기관리 활동 (In-Crisis Mode)

- 긴급대응팀 가동
- 의료·법률 네트워크 가동
- 위기관리 인프라 동원

회복지원활동 (After-Crisis Mode)

- 위기 멤버케어 지원
- 위기 디브리핑 상담 전문가 지원
- 의료·법률 전문가 지원

08044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117, 태성빌딩 403호 · 전화 02-855-2982 · 팩스 02-6455-2982 · 홈페이지 www.kcms.or.kr · 이메일 kcmskr@gmail.com · 후원계좌 국민은행 993101-01-182880 사단법인 한국위기관리재단

로, 입국 전과 입국 후 업무에 재직 중에도 외국인 간병인력의 교육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③외국인 간병인력은 한국어 토픽 3급 이상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이주를 허용해야 하며, 본국에서 간호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수용하고 ④외국인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 간병인력 교육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지윤 박사(한국이민다문화학회 회장, 한국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 소장)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포용과 협력(다양성의 가치와 공존의 길을 위한 다문화 전문가 육성 직무구조도 제시)'에서 "법·제도 및 정책 관점에서 국내에서 원하는 수준의 교육, 생활, 취업 등의 지원과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전문가양성과정 이수 후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 관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자녀 교육, 보육, 의료, 취업 등 서비스 제공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상담사, 다문화 사회전문가 등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면서 "이민·다문화 학문과 활동을 학교 안과 밖에서 국민전체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시설·생활 관점에서는 민원창구에 외국인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매뉴얼화하여 비치하고,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통역사를 배치해 의사소통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 "거주 관점에서는 외국인주민이 주거지원 상담에 불만족하는 이유의 48.6%가 의사소통 문제와 형식적 답변과 태도인데, 외국인주민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내정착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컨퍼런스 참석자 단체 기념사진

문창선 선교사(위대국제선교회 대표, 로잔디아스포라 부대표)는 '교계의 이주민 선교 흐름과 전략방안'에서 선교신학적, 사회현상학적 관점의 이주민선교를 소개하고, 지역교회들의 이주민 선교 참여를 위한 제언을 했다. 문 선교사는 "전 세계인의 7명 중 1명이 이주민인데, 이주민 선교에 소수만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이유는 선교지에 가는 속지적 선교에 고착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모든 지역교회는 이제 가는 것에만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닌, 모든 족속에 방점을 찍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속인적 선교로 나아가, 주변을 찾아온 이주민을 대상으로 목회·선교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교회의 이주민 선교 참여를 위해 △선교의 대위임령을 주님이 주신 큰 계명으로 이루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듯 이주민과의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를 관심과 사랑으로 돌파하고 △영혼 구령을 위해 이주민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섬김을 펼치고 △선교지가 우리로부터 먼 원심적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구심적인 곳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어,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서도 선교할 수 있어야 하고 △이주민들의 동화만 아니라 수용국 원주민인 우리들과의 상호 통합이 필요하며 △대상에 따라 이주민 정주 목회와

이주민 비정주 선교의 연계가 필요하고 △교회의 상황과 규모에 따라 종교권 이주민으로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역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주민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시급함, 전략적이고 실제적 행동이 필요하며 △이방인들을 향한 선한 부담감을 지니고 (레 19:33~34, 신 10:19) 문화적 다양성과 모든 문화, 종족, 민족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핵심적인 영적 원칙으로써 사랑과 환대를 베풀며(마 25:35, 롬 12:13, 벧전 4:9, 히 13:2) △주변의 이주민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복음적 영역을 넘어 정부 및 비정부기관과 파트너십도 필요하므로 총체적 사역을 시작하고 △증보와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팀, 타문화 적응능력 훈련, 타문화 환대 기술 등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함께 준비하며 △이주민들의 마음을 열 방법을 조사하고, 복음을 위한 접촉점을 이용해 진정한 관계를 만들며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주민 선교를 위한 세부적 매뉴얼과 지역교회의 이주민 선교 단계도 제시했다.

이슈&사례 발표 시간에 라파엘클리닉 남명부 국장은 '이주민 의료복지의 현황'에서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열

악한 진료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 의과대 가톨릭 교수회를 주축으로 CaSA(서울대 의과대, 간호대 카톨릭 학생회)와 함께 1997년 시작된 라파엘클리닉을 소개하고, 서울 라파엘센터와 동두천, 천안 진료소에서 진행하는 무료 진료 활동과 2007년부터 시작된 몽골, 네팔, 라오스,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해외 의료지원 활동을 소개했다.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유진 센터장은 '이주민 자녀의 교육정책 및 중요성'에서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격차와 무기력, 제한적 지원시설 이용률 등을 소개하며, 이들의 교육을 위해 실효성 있는 민간 차원의 접근과 의료사각지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임 센터장은 AI 학습기기를 활용한 학습멘토링을 교회에서 주일학교처럼 운영하는 방안과 병원, 의사들의 무료 의료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필리핀 마르나타신대원 정재용 박사는 '필리핀 선교사역을 통한 이주민선교의 사례와 실제, 해결 방안'에서 이주민 지원 및 선교 사례를 소개하며 "다문화 사역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며 "언어와 종족적, 문화적인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이해와 겸손, 협력이 요구되고 이뤄질 때 다문화(선교) 공동체는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많은 인내와 책임적 요소를 공유하고 이것을 위하여 희생할 때 다문화에 있는 우리의 현실적 대처와 미래에 대한 대처에서 많은 문제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www.globaluniversity.kr

글로벌대학교

Global University

미국연방정부 BA학사학위(신학과, 기독교교육과)
 대졸, 신학졸, 전문대졸 편입가능
 한글, 영문 택일 / 혼용
02-3662-1004

안산 이주민교회를 위한 ‘하루 찻집’



안산양무리교회 담임

글

김희창 목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는 스무 살 군복무 중에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붙들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새로운 삶을 주었고,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된 기쁨이 저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가고자 하는 선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스물여덟의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전도사를 시작으로 14년간 부교역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2011년, 경기도 안산 고잔동 상가 4층에 40평을 리모델링하여 마침내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이웃을 초청하여 교회에서 풍성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돌아간 뒤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나의 입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외쳤지만, 정작 내 안에는 교회의 부흥과 더 높은 곳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의논하고 성도들에게 내년에는 더 좋은 성탄 선물을 주님께 드리자고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시 116:12) 어

떻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할 때, 근처에 아프리카 친구들이 예배하는 나이지리아 교회가 보였습니다. 곧장 찾아가 성탄선물을 나누고 싶은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더니 난방비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또 멀지 않은 곳에 태국인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돈이 없어 딸을 무용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태국인 엄마를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 교회에도 초등학교생 아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중국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이주민교회와 기쁜 성탄절을 함께 보내기 위해 첫 번째 ‘하루 찻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산 이주민교회를 위한 ‘One Day Live Cafe’

2012년 10월부터 두 달간 준비한 끝에, 하루찻집이 12월 둘째 주 토요일에 막을 열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여덟 시간 동안 라이브 카페가 진행되었으며, 일곱 교회가 참여하여 찬양과 연주와 태권도 공연 등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열 명 남짓한 성도들이 종일 안내와 음식 준비, 서빙, 찬양과 진행, 정리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기적 같은 첫 번째 하루찻집이 마무리되고, 오전 원짜리 티켓을 팔아서 모은 금액 170만 원을 이웃 교회와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은 피곤함도 잊고 내년 하루찻집은 더 잘 준비하자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루찻집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교회가 늘고 모금액과 물품도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합동 측이지만, 통합 측·감리교·침례교·성결교·순복음 등 교단을 초월해 이주민교회를 돕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교회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과 그 후 2022년의 하루찻집은 어느 해보다도 풍성했습니다. 25곳의 지역교회와 20곳의 이주민교회, 총 45곳의 교회가 찬양과 연주와 춤으로 하루찻집을 섬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모금액 1,700만 원과 각종 물품으로 교회 20곳을 지원하고, 10명의 이주민 선교사님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지역교회와 성도님들이 이주민교회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월세가 부담되는 이주민교회를 위해 예배 장소와 교육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교회가 세 곳이나 되고,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과일과 생필품을 보내주시는 교회와 이웃들도 생겼습니다. 이주민교회를 위해 매월 작정 헌금을 하는 집사님과 권사님도 계시고, 외국인 사역자의 가정에 매월 장학금을 보내주는 교회를 비롯하여 후원할 교회를 연결해 달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주민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주민교회와 친구 되기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고후 8:12)

주님은 제게 선교사의 마음을 주셨지만, 정작 저는 선교지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외국어도 잘 못합니다. 또한 안산양무리교회는 상가 4층 40평 공간에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교인들도 적고, 재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주민교회의 어려운 사정

을 잘 알고, 필요를 공감합니다. 그들에게 친구와 이웃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가까운 가족과 친척, 친구, 선배와 후배 목사님들, 나아가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성탄절을 맞아 이주민교회와 이주민 선교사님들의 친구가 되어 주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주민교회를 위한 하루 찻집’ 티켓을 건네며 초청 문구를 큰 소리로 읽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16면 참조).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12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6시까지 안산양무리교회(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97, 4층 새마을금고 옆)로 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자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이주민교회를 위한 기도

- 주님, 안산에 와 있는 118개국 이주민들이 눈을 들어 당신을 보게 하소서.
- 70개의 이주민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안산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 초청과 환대, 나눔과 섬김으로 주님께 드리는 성탄 선물을 준비케 하소서.
- 하루찻집을 통하여 이주민교회와 이주민 사역자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 안산의 지역교회와 이주민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사랑하게 하소서.
- 안산의 모든 지역교회가 이주민 한 민족, 한 가정, 한 사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웅 서 훈 최기천 김승운 문향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운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옥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경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명 ■ 무임장로 / 김진옥 김성현 ■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문탁 박광운 옥치안 이흥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옥,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재,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쌍 ■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기관

디아스포라와 위기관리



前 한국 SIM 선교사
現 한국위기관리재단 대표

글

조동업 대표

위기의 시대

21세기 지구촌은 지진, 전쟁, 질병, 사고 등 위기의 일상화로 인해 인류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튀르키예, 모로코, 네팔 등에서 일어난 강진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다.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 수단의 내전, 니제르의 쿠데타 등으로 허다한 사람들이 가족과 재산을 잃고 난민이 되어 유리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새로운 전염병을 염려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과학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역시 삶의 안전을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보다 고국을 떠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750만 명에 이르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한국에 와 있는 250만 명의 이주민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3억 명에 달하는 이주민들 역시 자국에서 일어나는 재난·재해·전쟁·사고 등의 위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자국과 거주국의 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디아스포라 한인들과 국내 및 각 나라 이주민의 위기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위기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일반적으로 위기관리는 위기에 대한 예측과 예방, 위기 대응과 사후관리로 이루어진다. 위기는 발생 전에 전조 현상이 있고, 발생 후에도 위기 대응 및 사후관리에 따라 인명과 재산의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다. 아무리 한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하지만, 발생한 위기를 잘 처리하는 것과는 달리 예방을 소홀히 하며 쉽게 간과한다는 사실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이에 위기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한국위기관리재단의 활동에 비추어 살펴보고 한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를 계기로 설립되어 2011년 외교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써, 국내외의 다양한 위기를 분석·평가하여 위기를 예측하는 동시에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위기를 예방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위기 발생 시 위기관리 및 지원활동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과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NGO)이다.

가장 좋은 위기관리는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위기를 예측하고자 주 3회 최신위기정보 및 대테러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다. 또한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으로 △위기관리세미나 개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위기관리 서적과 자료 출판 △인간관계훈련(SYIS) △위기대응훈련(CRT) 등을 하고 있다.

위기 발생 시 대응으로는 긴급대응팀 가동과 더불어 의료·법률 네트워크 및 인프라 동원, 위기관리 컨설팅 및 지원활동을 한다. 그리고 위기 상황 이후 회복을 위한 멤버케어 지원으로는 디브리핑 상담 전문가와 의료·법률 전문가를 지원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위기관리는 단순히 위기 발생 시 대처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기를 예측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예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기관리는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정부·국민·단체·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협력 내용으로는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업무 협력 △민관 합동 위기 대응 훈련 △국가별 안전 정보 공유 △국내의 안전관리 등이 있다. 국민에게는 해외여행객 위기 교육과 초중고생 안전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단체와는 △위기 정보의 수집·분석 △공동 위기 대응 지침 개발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기 예방을 위한 제안

위에서 살펴본 위기관리 활동에 비추어 디아스포라 한인과 이주민에게



▲ 위기관리 세미나



▲ MK 수련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모습

필요한 위기관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디아스포라 한인과 이주민들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뉴스 혹은 공공기관의 정보 등을 통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소에 심폐소생술, 비상 대피 훈련, 안전관리 등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성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사후약방문과 같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위기 발생 시에 필요한 비상연락망 구축과 비상금 준비 등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자국의 외교부·대사관·한인회·교회 등과 연락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즉 불신앙으로 인류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웃·자연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한다.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law.com
www.d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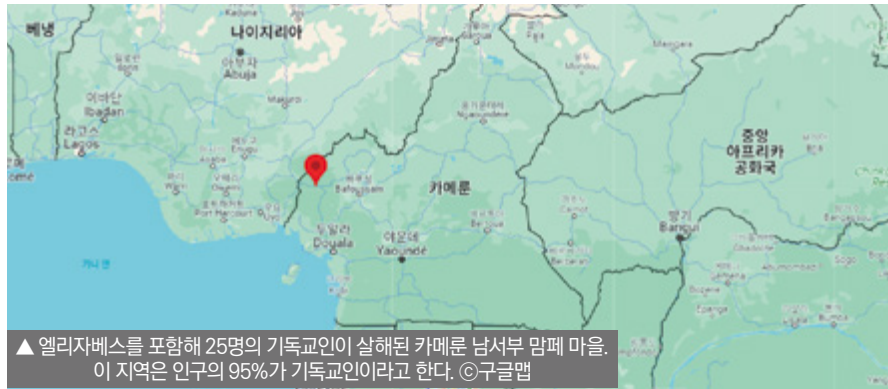
“아내, 자녀들과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지난 11월 6일 카메룬 남서부 지역 맘페(Mamfe) 마을에서는 총을 든 무장 괴한들이 급습하여 최소 25명의 기독교인을 사살하고 집들을 불태우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편의 아내이자 다섯 자녀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Elizabeth)도 이날 집에 쳐들어온 괴한들에게 희생된 후 시신이 집과 함께 불태워졌다. 당시 함께 있던 두 자녀와 조카들 및 처남은 빠르게 뒷문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엘리자베스와 남편 아자흐 프란시스 아슈(Ajah Francis Ashu, 54)의 가족은 나이지리아 국경에서 50km가 채 떨어지지 않은 이 마을에서 내전에 의한 치안 악화로 공포와 불안에 떨며 살아왔다. 카메룬의 소수 영어권 지역 분리주의자들은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북서부 및 남서부 카메룬 지역에서 공격과 납치, 살해를 자행해 왔다. 특히 분리주의 반군은 2017년부터 암바조니아(Ambazonia)라는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는 폭력을 저질러, 지난 7년간 최소 6,000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지역 인구의 95%는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신앙도 종종 공격의 이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실한 기독교인인 아자흐는 기독교가 강하고 사람들이 친절했던 한국에서 난민 비자를 받아, 하루빨리 가족이 함께 모여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그러나 번번이 비자를 거절당하던 중 이번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사고로 그의 소박한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제 아자흐에게 남은 소망은 하나다. 자녀들을 안전한 한국에 데려와서 함께 사는 것이다. 아자흐는 최근 본지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엘리자베스와 결혼한 것은 내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었다.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면서 “그녀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저와 우리 아이들을 지지해 주었고,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주었다. 제가 한국에서 일자리가 없는 동안에도 아내가 아이들을 홀로 부양해 왔다”며 그리운 마음을 드러냈다.

아자흐는 1990년 카지푸(Kajifu)라는 마을에서 열린 학생 행사에서 엘리자베스를 처음 만났다. 1992년 첫째를 낳고 1993년 전통혼례를 치렀으며, 1998년, 2001년, 2005년 2008년에 각각 자녀를 출산하여 현재 자녀들의 나이가 31세, 25세, 22세, 18세, 15세가 되었다. 법정에서의 결혼은 2012년에 했다. 아자흐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11월 6일, 카메룬 시각으로 오전 4시쯤 넷째 딸의 전화를 받았다. 딸은 울고 있었고, 무슨 문제인지 묻자 “엄마가 돌아가셨다”라고 말했다. 그 충격으로 아자흐는 더는 말을 꺼낼 수 없었고, 4일 후에야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이 발생했는지 알기 위해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넷째 딸에 따르면,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공포에 빠진 가족들이 엘리자베스를 제외하고 모두 화장실로 도망쳐 숨었다고 한다. 그사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 괴한들은 엘리자베스의 방에 들이닥쳤다. 총을 든 그들은 엘리자베스에게 남편과 아이들에 대해 물었고,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집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순간 괴한은 엘리자베스를 총으로 쏘 죽였다.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본 딸은 너무 놀라지도 모르게 “예수님”이라고 두 번 소리쳤다고 한다.

괴한들은 집에 함께 있던 두 자녀와 조카들과 처남, 그리고 마을에서 같은 위험에 처해 도망친 4살과 7살 정도 된 아이들을 찾기 위해 계속 다른 방들을 뒤졌다. 다른 가족들이 처음 총성을 듣자마자 집 뒷문으로 뛰쳐나온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결국 아무도 찾지 못한 괴한들은 엘리자베스의 시신과 함께 집을 불태운 후 떠났다. 엘리자베스의 시신은 사망 당일 오후 3시쯤 매장됐다.

아자흐는 사건 이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로 멀리 떨어진 마을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는 “자녀

들은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우울해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본 넷째 아이가 그렇다”며 “자녀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 괴한들은 앞으로 다시 이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제 아이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걱정했다.

아자흐는 “제 모국 카메룬에서는 이런 야만적 행위를 벌이는 알려지지 않은 무장 괴한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이 매일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어 주민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부 카메룬의 해방을 위해 싸우고 있는 영어권 카메룬의 진정한 해방 전사들은 이런 사악하고 악마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며 “이 알려지지 않은 총잡이들은 정부에 의해 파견되어 무고한 사람을 강간하고 살해하며, 집을 불태우기 때문에 절대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자흐는 2013년 컨퍼런스를 위해 한국에 온 이후 비자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9년간 한국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4년 1월 4일 손가락 절단 사고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다행히 G1 의료비자를 받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한국에 머물렀지만, 기한이 끝나자 이민국은 아자흐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아자흐는 내전이 계속되는 카메룬에 돌아갈 수 없어 난민 비자 신청을 했다. 세 차례 법원에 출석했지만 비자는 거절됐고, 이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를 신청하여 항소가 승인된 상태다. 아자흐는 “2022년 9월 비자를



To-Plate

천혜지역 호주의 먹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원하며,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전 세계 가족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To-Plate는 한국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문의 010-6342-0691



At To-Plate, you will learn unique stories of passionate Australian producers and be able to buy their artisan food & beverage products via our online grocery store. The best part? We'll deliver the treats to your door.

연장해야 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날짜를 놓쳤다. 3일이 지나 찾아갔을 때, 해당 출입국관리소에서 비자 연장이 안 되니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지 않으면 비자 신청이 취소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두 차례 받았는데, 그들에게 가서 설명하기가 두렵다”며 “체포돼 고국으로 송환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아자흐는 한국에 온 이후 교회를 꾸준히 다녔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여전히 굳게 붙들고 있다. 그는 “아내와 다른 사망한 24명의 기독교인이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또한 한국 정부를 통해 제 아이들을 이곳에 데려올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를 본 맘페 마을 주민 중 다수가 임시 피난처를 찾

기 위해 다른 도시와 마을로 도망갔다고 한다.

아자흐는 “비록 제 아내는 죽었으나, 저는 그녀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있을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시간 당신을 다시 데려가기로 결정하

신 분도 하나님이지요. 나는 당신이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죽기 전 당신과 함께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셨어요. 당신이 매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요.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무슬림 전도, 왜 이다지도 힘든 것인가? (1)

열무김치 네트워크 회장
아신대학교(ACTS)
중동연구원 교수



글

김종일 목사

“지금 지구촌 안 무슬림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들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피가 마릅니다. 다른 지역으로 나갔던 동료 선교사들은 하루가 다르게 교회가 부흥되어 가고, 벌써 여러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우리 이슬람권 사역은 수년이 지나도 처음 왔을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역자들도 늘 기도하면서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자유롭게 다가가기도 힘들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찾아도 늘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파송교회에 보내야 하는 기도편지에는 위낙 사역에 변화가 없어 쓸 내용도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위 내용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무슬림을 대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마음

이기도 하다. 도대체 무슬림을 향한 복음 전파는 왜 이다지도 힘든 것일까? 물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지만, 이슬람권 사역현장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은 매우 지쳐있다. 이슬람권에서 눈에 띄는 부흥의 소식이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그 문은 굳게 닫혀서 좀처럼 열릴 것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무슬림 대상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한 명의 무슬림을 효과적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까’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제자로 자라기까지의 긴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깊이 고민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무슬림들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나’란 질문의 대답을 먼저 찾는 데서 매듭을 풀 수 있다.

무슬림 전도의 가장 커다란 방해요인은 이슬람의 신학적 교리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이슬람 신학의 핵심은 ‘알라’의 단일성이다. ‘알라’ 외에는 어떠한 신도 있어서는 안 되며, ‘알라’와 비교되는 어떠한 존재도 있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삼위가 한 하나님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이슬람 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러나 무슬림 사역을 아무리 지혜롭게 맞춰가야 한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를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 아닌 한 예언자로 전락시킨다거나, 혹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예수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갈등과 충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무슬림들은 만약 예수가 알라의 예언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이는 알라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알라에 의해 보냄을 받은 예언자 예수는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철저하게 믿고 살아간다. 이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신,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몸값을 치러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학의 원죄를 부정하는 것이자 그리스도

의 희생과 대속, 속죄와 중보자 되심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무슬림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말인즉,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고 그냥 하늘로 부른 이슬람의 알라와 예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후 하늘로 부른 우리 하나님 중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한다. 동시에 이슬람 신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인간의 죄 용서와 구원으로 연결 지어 지혜롭게 대화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무슬림에게 복음 전도를 하기 어려운 까닭은 그들이 자라면서 이슬람 신학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반 기독교 사상을 듣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연재) 다음 호에 계속

열무김치는 ‘열방에서 국내로 들어 온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코리안 처치(김치) 사역자 네트워크’의 준말로, 현재 150여 명이 모여서 한국교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산소망교회

이주민선교
온가족예배

유관기관 위디국제선교회, (사)피드더칠드런 한국위원회
명학마을 작은도시관, 보아스의발

산소망교회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www.sansomang.org
031-468-9191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통전적 선교해야”

제이 마텡가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선교위원장 인터뷰

지난 11월 7~10일 경기도 여주 마임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 ‘2023 KGM-LF’(Korean Global Mission Leaders Forum)에 강사로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제이 마텡가 위원장을 11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더라운지에서 만났다. 이번이 첫 방한인 마텡가 위원장은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일정을 마치고, 다음 일정이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했다.

인터뷰 중 전인적, 통전적 선교를 계속 강조한 마텡가 위원장은 “(임기가 시작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WEA 선교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재구성하면서 내실 있게 준비하는 기간을 보냈다”며 “두 가지 집중한 이슈는 ‘파송선교단체와 지역교회의 급진적인 협력 및 전인격적 선교’와 ‘IT 기술을 활용한 선교적 시너지’였다”고 밝혔다. 통역은 아시아복음주의연맹(AEA) 선교위원장 문창선 목사(위대국제선교회 대표)가 섬겼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4년간 WEA 선교위원장으로선 선교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어떤 이슈에 집중해 왔나.

“WEA 6개 부서 중 하나인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안에 선교위원회가 있다. 글로벌 위트니스의 경우 선교단체들의 연합회들이 속해 있고, 행정 협력을 위한 MOU를 하고 있다. WEA 선교위원회는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기존 방식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사역을 재구성하면서 많은 교회의 선교를 지켜보고, 내실 있게 준비하는 기간을

보냈다. 이 기간 한국에서도 귀국 선교사들이 많이 증가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의 귀국으로) 이주민 선교가 활성화되어 지역교회들이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다고 본다.

또 ‘16년경부터 세계기독교(World Christianity)의 또 다른 이름으로 ‘다중심적 선교’(polycentric mission)가 시작되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의 선교와 함께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교회에 사역의 주도권이 주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미진한 면이 있었다. 그런데 COVID-19의 위기는 오히려 지역교회들이 사역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갖게 하여, 엄청난 힘과 권한을 얻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 선교사들의 귀국으로 타문화, 교차문화적 요소들이 지역 사회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지역교회들이 선교를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는 많은 전통적인 선교 현상이었던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중앙아시아, 태평양 군도 등에서 일어났다. 또 이 지역에서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약품과 음식 등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것이 요구됐고, 사람들이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역교회의 특성이 드러난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WEA 선교위원회가 집중해 온 두 가지 포인트 중 첫 번째는 ‘파송 선교단체와 지역교회의 급진적인 협업’과 ‘모든 성도가 생명을 다해 온전히 전인격적인 선교’를 하도록 주도해 나가는 것이었다. COVID-19를 계기

로 논리와 이론만 가지고 말씀이 전해지던 것에서 실제적인 도움과 필요를 공급해 주는 헌신적인 나눔의 사역으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말씀과 제자로서 따르는 삶이 일치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이것이 힘 있게 발전하는 동기가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상황화된 선교 중 ‘IT 기술을 활용한 선교적 시너지’다. 한 예로 30억 명의 사람이 메타버스에서 게임을 하는데, 그곳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선교적 영향을 줄 수 있는냐의 문제다. 이밖에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워낙 넓고 많은 아젠다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급한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지난 1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WEA 선교위원회 글로벌 컨설팅을 개최하면서 선교의 미래를 전망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협업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논의했다. 특히 여성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지금까지의 비율과 앞으로의 기대치에 관한 통계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팬데믹은 여성들의 역할 분담과 참여의 증가를 가져온 동시에 기성세대와 다음세대가 나이와 지역을 초월하여 협업하고 도전할 기회를 주었다고 본다. 그래서 팬데믹 때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더 역동적으로 선교에 동참시킬지에 대한 기대치가 커졌고, 지난 10월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ELS’23(Emerging Leaders Summit 2023) 모임이 그러한 결과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WEA 선교위원회의 방향성과 장기 사역은 무엇인가.

“연합이고 협업이다. 존재하는 것들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것, 그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늘 말씀을 전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는 소위 통전적 선교에 대해 좀 더 접근성을 가져야 된다고 본다.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더 많이 모색해야 한다. WEA 선교위원회 산하에도 로잔과 마찬가지로 이슈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인신매매, 종전, 평화와 화해 등이 있다. 우리는 아주 실제적인 사람들, 곧 움직이는 디아스포라를 통해 이러한 사역에 대한 결과물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아져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좀 더 많은 결과물이 연합되어 나오길 바란다.”



제이 마텡가(Jay Matenga)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선교위원장
미션스 인터링크 New Zealand 집행임원
인터서브선교회 국제위원회 사무총장

DIASPORA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이주민선교 정보를 공유하고 소식을 전하는 디아스포라신문의 문서선교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구독신청: 010-7418-0191 ※ 후원계좌: 국민은행 264401-04-34307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간절한 바람은, 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보되고 이뤄지기 위해 현지인에 의한 현지선교가 더 활성화되고, 그 일을 온전히 현지인들이 감당하기 원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에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토착교회를 발전시키고, 토착선교의 발전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열정을 가지고 기대해 온 것이어서 매우 도전적이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서구 선교와 서구 신학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선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영역에서 일반적인 계시로 나타났다. 현지인에 의한 선교가 새로운 것은 없고, 다만 현지 상황에 맞춰 현지 사람이 더 주도하면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지혜로 뭘 못하시겠나.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따라 장래에 주님이 펼쳐놓으실 것을 보고 함께 발견하고 증명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기독교와 선교 환경의 변화 가운데 주목하는 흐름이 있다.

“많은 지역에서 자신학과 자선교학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토착신학의 심화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 현상의 약점이자 단점은 자민족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개혁신학만 제대로 된 신학이고, 아프리카의 카리스마적 신학은 제대로 된 신학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고 연합하여 풍성해질 수 있도록 수용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힘 있게 촉진하는 이들이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이다.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의해 복음도 움직여지고, 이 복음이 기존에 존재하거나 상황화된 것과 서로 조화되고 연합되며, 풍성한 나눔거리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적이고 신양적으로 더욱 깊이 있게, 간혹 협소하게 보이는 것 같더라도 전 세계의 흐름이나 상황들이 덧입혀지면서 성령 하나님의 제한 없는 능력이 더더욱 배가되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복음에 대해 ‘예수천당’만 외치고 천국에서의 삶만 이야기하는 것은 순전한 것이라기보다 제한적인 것이라고 본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위로도 얻고 재난도 돌파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



▲ 제이 마렐가 WEA 선교위원장은 “선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현지인에 의해 현지선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힘이 소위 복음에 있지 않나. 따라서 복음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삶의 풍성한 것까지 모두 접근해야 한다. 랭함 프리칭의 나의 친구 폴 윈저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가질수록 이 땅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복음의 능력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치를 극대화하고 앞당기는 일을 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영화를 미리 보는 일을 가능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위임령을 위해 남반구 및 비서구 복음주의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많은 사람은 대위임령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우리 때에 해야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선교지로) 가는 것과 가르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대위임령에 대한 정의를 서구권에서 내릴 때는 다소 침략적이고 공격적, 진취적으로 가야 하고, 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흔히 가지 않아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부분은 우리가 같이 살아내는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대위임령 성취를 어떤 시각을 갖고 정의하여 이뤄야 하는지는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대위임령의 성취는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에 정식으로 순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하고, 함께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이웃으로 살아 나가며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신약성경에는 대부분 ‘주 안에서 함께 살라’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많다.

물론 둘 중 어느 것만 택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함

께 더불어 토착적 관점에서 선교를 해야 할 것이다. 원래 선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뤄져야지, 선교지에 가서 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만 하면 뭐하나,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위임령을 위해 서구 복음주의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서구선교가 다수 위기를 맞이하면서 젊은 세대를 놓치고, 많은 영혼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 등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보고, 열정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서구 신학계의 몰락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젊은 세대가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미 영생에 대한 추호의 의심이 없고 확신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픈 사람들, 하루를 굶으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영생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겠나. 당장 괴롭고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람을 돕고, 함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영생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달려온 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좀 더 겸손하게 다시 한번 모든 영역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선교단체 및 기관에서 동원 사역을 해왔다. 한국도 다음세대 선교 동원 및 세대 간 협력에 관심이 많다. 조언을 해준다면.

“한국의 청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첫 번째, 겁내지 말고 좀 더 탐구적이고 개척적인 정신을 가지면 좋겠다. 두 번째는, 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나의 세대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때가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나이 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신뢰해 주고,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른들은 젊은이들보다 분별력이 더 있기 마련이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 원했는데, 담임목사님은 ‘너는 목회자가 될 것 같지는 않아’라고 말씀하셔서 상당히 실망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목사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분별해 주신 것이었다. 덕분에 나는 다른 영역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땐 내가 몰랐는데 목사님의 이야기가 맞았었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해야 할 말은 분별해서 제대로 말해줘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을 주목하는 일은 교회 내 기성세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마을에는 전통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을 유심히 보고 정원사, 군인, 교사 등 각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분별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 필요한 특별한 선물,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은사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갖춰져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도행전 2장 42~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는 부분이다. 그것이야말로 한국교회에 적용돼야 하고 우선적으로 여길 부분이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다.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고, 나눠주고 꾸어주는 부분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나.

한국은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 있어, 남북이 절대적으로 평화롭게 화목하는 것이 정말 큰 과제다. 그 일을 기독교인들이 해야지 누가 하겠나. 마오리족도 식민지배를 받은 상처가 있어 기독교인으로서 이 상처를 이겨내고 회복할 과제가 있는데, 하물며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나눠진 상태라면 더더욱 기독교인들이 평화를 외치고 회복을 이루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MMTS 25기: 국내 이주민 선교를 배우다

글 김종구 선교사

빌리온선교회 선교연구원장
현재 C국 선교사
「선교타임즈」, 「한국선교KMQ」 편집위원

MMTS 참가를 결심하다

최근 나는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의 2023년 가을 정기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이주와 선교'였는데, '한국교회의 이주민 사역에 관한 실천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작성하고자 선행 연구된 문헌을 찾아보았고, 실제로 이주민 사역을 하는 단체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만나면서 이주민 선교에 관한 여러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사실 다년간 선교회의 대표를 맡으며 초기부터 국내 이주민 선교를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하고, 현재도 국내 이주민 선교사역을 하면서 사역 경험을 토대로 강의도 하며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인식이 스스로 있었다. 그러나 논문을 쓰기 위해 연구하고 여러 이주민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나의 무지와 편협한 지식 그리고 전략적이지 못한 사역의 실재를 철저히 깨닫게 되었다. 부끄러운 생각이 엄습하던 즈음, 마침 이주민선교

훈련학교(MMTS, 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 25기 훈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등록하여 현재 훈련받는 중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MMTS를 말하다

MMTS는 전체 3부분으로 구성되어 △첫 부분은 '상황과 이해'로 이주민 선교의 성경적·역사적·법적 근거를 다루고 △두 번째 부분은 '준비와 적용'으로 이주민에 관한 이해를 돕고 △세 번째 부분은 '진행과 성취'로 다양한 사역 사례를 살펴본다. 훈련은 13주 과정의 강의와 아울러 주제 관련 발제문을 2~3편 읽고 리뷰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주민과 접촉하여 교제를 나누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도록 과제가 주어지기도 한다. 또한 매주 다양한 이주자 현황을 파악하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격려한다.

아직 준비 중이지만, 마지막 주에 발표하게 되는 '개인연구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은 내용을 실제 사역에 적용해 보며 훈련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처럼 MMTS 훈련과정은 단순히 지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을 넘어서 자·정·의(知·情·意)의 요소가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고, 영적인 요소를 간과하지 않으며 이주민 사랑과 이주민 선교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도록 인도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이주민 선교를 배우다

이주민 사역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결의 이주민 향해 '환대'를 베푸는 것임을 훈련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회는 새롭게 형성되는 인구학적 현실, 즉 '다문화'를 고려하여 선교적 우선 과제를 재편해야 하고, 다문화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적 책무를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교회)의 주변에 무관심·차별·노동력 착취·학대·생계의 위협 등으로 고통받는 이주민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달았으며, 교회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따뜻한 보살핌과 '환대'로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MMTS 훈련이 사역 대상인 이주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를 근거로 한 사역의 형태, 방법 등에 관해서 이론과 실재를 겸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주었다.

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이주민 사역을 하는 이들이나 향후 이주민 사역을 준비하는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이주민 선교 훈련과정이라고 확신한다.

MMTS를 적용하다

훈련을 받으며 이주민 선교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교정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적용해 나갈 것들 몇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소속 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6개의 이주민 사역팀 선교사들과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자리를 마련하여 훈련받은 내용을 공유하고 사역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며, 이들이 다음 훈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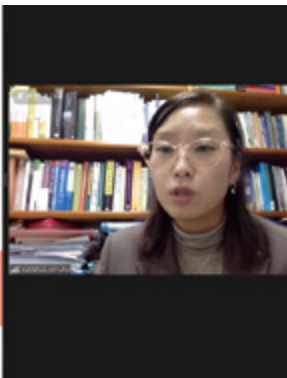
둘째로, 현재 내가 지역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국어 예배부 사역과 2024년에 통합 예정인 이주민 사역에 적용할 부분을 정리·공유하여 실천해 나가려고 한다. 셋째로, 종종 이주민 선교에 관해 강의할 기회가 있는데, 이번 훈련받은 내용을 참고하여 신선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강의하고자 한다.

목표: 타문화권(타종교권)에서 온 이주민의 신앙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이주민사역을 위한 비교종교학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 AND FAITHS

현현나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 MMTS 강의를 진행 중인 모습



전체적으로 본다면, MMTS 훈련과정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들의 강의 △강의 주제와 관련된 발제문 읽기 △이주민 현황 조사와 이들을 위한 기도 △이주민 선교단체 방문과 이주민 만나기 △이주민 관련 영화를 보고 감상문 쓰기 등의 체계적이고 입체

넷째로, 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이미 발표한 논문이지만, MMTS를 수료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다양한 이주민 선교 전략 및 실제 현황 등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후 이를 학회지에 투고할 계획이다. 끝으로 현재 이주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나 교회, 또는 앞으로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 교회나 선교사에게 이 훈련을 강력하게 권하고 싶다.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 이 재 호

Mission Statement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불의한 권세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사업(BAM)영역

1. 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2. 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3. 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등
4. 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5. 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6. 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출애굽 사건에 담긴 디아스포라의 믿음

위대국제선교회 국제이사
Gardner Webb University
선교학 교수



Dr. Tereso Casiño

글

모세가 장장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친 히브리 공동체를 이끌고 애굽을 떠났을 때, 모두가 희망에 부풀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집으로 여긴 곳이였기에 애굽을 떠나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약속의 땅이 보이는 새로운 지평에서 옛 노예들이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그 여정은 아주 길고 위험하며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놀라움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대규모 이주를 하는 데 무려 40년이 소요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툼과 불평, 이따금 일어나는 반란, 반복되는 도덕적·영적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거둬 떨어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40년의 고된 여정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디아스포라 현상 안에 담긴 여러 신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출애굽기의 영적인 요소이다.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위에 펼쳐진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다. 하나님은

직접 나서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출 3:7)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필요를 채워주셨다(출 5:1).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했다(신 8:2). 이러한 영적인 교훈은 출애굽기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너를 낫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장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장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신 8:3~6)

둘째로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측면이다. 히브리 공동체는 노예로서 애굽의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데 동원되는 노동력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대규모 이주는 애굽의 사회적 체제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었다. 바다가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거부한 것은 명백하게 국가적 손실에 대한 우려였다. 히브리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 통합되면서 사회의 한 축을 담

당했다. 히브리인들의 육체노동을 통해 강력한 왕조의 경제적 기반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던 것이다.

또한 히브리 노예들은 금전적 대가 없이 일하였기에, 히브리인이 떠나면 애굽은 새로운 노예를 모집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라는 정치권력을 잃고 애굽인들 사이에서 지도력이 약화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며, 노동의 대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밭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출 3:22)

셋째는 출애굽기의 문화적인 부분이다. 애굽에서 체류했던 세대는 수용과 적응을 통해 애굽 문화에 동화되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모습을 띠었다. 반면 출애굽 세대는 이주를 경험하며 자신의 고유한 종교적 체계와 문화적 가치, 윤리적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되는 것을 거부했다. 비록 일정 부분 동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관습과 형태를 발전시켰다.

우리는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브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장인으로 임명하신 부분에서 그분이 이스라엘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론과 레위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

가도록 아론과 레위의 지도 아래서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 임명되었다(출 28~30; 레 8~9; 민 18).

마지막으로, 출애굽 과정에서 생겨난 조직체계가 있다(출 18:17~25). 광야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드로는 모세에게 리더십을 분배하라고 권했다. 일상 업무의 효율적인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체 인구를 세분화하여 지도자를 선별하라는 것이었다. 이전에 모세는 사소한 일까지 관여하며 관리자 역할을 했지만, 이드로의 제안으로 공동체를 세분화한 뒤로 추가적인 리더들이 그를 돕기 시작했다. ‘직접 관리’를 ‘위임 관리’로 전환한 것은 이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과 달리 출애굽 세대는 조직적인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었다. 세분화된 영역으로는 영적인 일(아론과 레위 지파 사람들), 행정적인 일(모세와 장로와 지도자), 민사적인 일(선출된 지도자), 군사적인 일(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 이러한 조직화는 공동체 안에 결속력과 회복력을 가져왔으며, 이는 출애굽 세대의 특징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며 인내와 겸손을 배웠다. 어려운 상황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들도 있었지만(민 14:3~4), 이동하는 내내 위기를 겪으며 그들 안에 회복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로써 막막한 고난과 시련 끝에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살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Shalom CHURCH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살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랑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영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G기독교학교

주일에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배 19:30 / 목요일회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생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이주민 선교를 알리고, 연구하며, 선교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 도구 ICDM

경기도 안양시의 새중양선교센터 508호에 소재한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ICDM)는 상황화된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개발하고 이주민 선교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디아스포라 환경에 최적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주민 사역을 효과적으로 섬길 지도자를 길러 내고 있다. 설립 이사장인 새중양교회 황덕영 담임목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ICDM을 통해 선교를 주도해 나가실 것”이라고 기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ICDM의 실무 사역은 로잔 상임고문이자 로잔 산하에서 디아스포라 선교에 힘써 온 테드 야마모리(Ted Yamamori) 박사와 문창선 선교사(위대국제선교회 대표,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상임대표, 로잔디아스포라 부대표)가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 사는 이주민은 얼마나 될까

2023년 4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인 2,354,083명으로 등록 외국인인 1,237,616명,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506,195명, 단기 체류 외국인인 610,272명이다. 국적별 체류 외국인인 중국 37.7%, 베트남 10.9%, 태국 8.8%, 미국 7.2%, 우즈베키스탄 3.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이 다문화사회라 불리게 된 배경에는 한국 경제를 이끄는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그 해결 방안으로 실시한 외국 노동력의 지속적인 유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입된 이주민은 가족 동반까지 포함하여 그 수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에 진입하면서 생산연령 인구

가 급감하고 있고, 2020년 수도권 인구 비율은 50.2%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험 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이주민 정책(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 혁신성장계획을 발표하는 등 관련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활성화 이민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다양해진 이주민 선교

OECD 국가 중 0.78(2022년 기준)이라는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나타내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2세의 증가는 매우 두드러지는 추이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개선과 대학교들의 학비 지원 시스템 등의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차지할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와는 반대로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2021년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자녀들의 수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단순히 외국인근로자가 주를 이루는 사회를 넘어서, 다양한 이주민들이 가정을 이루며 그 수가 증가하는 사회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주민 선교는 이주민근로자 뿐만 아니라 이주민 자녀, 동포, 다문화 가정,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ICDM의 전문적 전략적 접근

ICDM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통해 전 세계에 선교적 영향력을 끼치려 노력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극대화하여 전 세계 복



음화 지수를 높이는 데 한국교회가 힘쓰도록 격려하고자 한다. 또한 모든 선교단체 및 교단과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를 더 많이 생성할 뿐 아니라,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미전도종족 선교와 통전적·전방위적 사역에 동참하도록 촉진한다. ICDM은 전 대륙의 선교사들로 구성된 글로벌 팀을 구성하여 현지조사, 문화역량교육, 이주민 사역 인턴십 및 몰입, 전략기획 및 비전 캐스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황화 디아스포라 선교'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은 특정 이주민 사역 환경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ICDM 계열 학자들과 협력하여 이주민 공동체 간의 특정 이슈와 요구를 해결하고 관련 전략을 개발한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해 요점

지역교회의 성도들은 이주민 선교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이주민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한다. 글로벌(Glocal)한 시대에 이주민을 향한 관심이 시급하며, 전략적이고도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둘째, 이주민을 향해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편파적이거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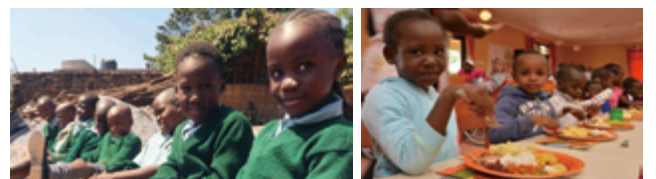
민족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이방인을 향한 선한 부담감'을 지녀야 한다(레 19:33~34; 신 10:19). 문화적 다양성과 모든 민족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핵심적인 영적 원칙으로써 사랑과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마 25:35; 롬 12:13; 벧전 4:9; 히 13:2). 셋째, 주변의 이주민에 대해 알아야 한다. 어느 민족인지, 얼마나 오래 체류하였는지, 이주하게 된 목적과 직업은 무엇인지, 종교 성향과 복음에 대한 수용성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넷째, 총체적 사역을 시작하여야 한다. 때로는 복음적 영역을 넘어서 정부 및 비정부기관과의 파트너십도 필요하다. 폭력, 인신매매 등의 위험에 처한 난민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 서비스와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훌륭한 사역이다.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섯째, 효과적인 사역을 하려면 협력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영적 전쟁을 위한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는 훈련을 제공하여 사역자로서 타문화를 환대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이주민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고 복음을 위한 접촉점을 활용하여 진정한 관계를 쌓아야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내보이
되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일곱째,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
여야 한다. 기독교는 성경에 바탕을 둔
것이지, 문화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님
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주민 선교,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교회는 이주민 선교 사역에 절
대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별한 훈련
과 인준을 받은 특정한 사람만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라면
모두 참여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주민
선교에 관한 성도들의 인식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이해와
수용이 요구된다. 첫째, 선교의 대위임
령을 주님이 주신 큰 계명으로 이루는

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
하라”는 말씀처럼 이주민과의 언어장
벽과 문화차이를 관심과 사랑으로 돌
파하여야 한다. 둘째, 영혼 구령을 위
해 이주민에게 특별한 배려와 섬김을
펼쳐야 한다. 셋째, 선교지가 우리로부
터 먼 원심적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
는 구심적인 곳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세계화는 지역화로, 보
내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기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교회
는 선교사를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 안에서 선교할 수 있어야 한
다. 넷째, 이주민의 동화뿐만이 아니라
수용국 원주민인 우리의 상호 통합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상에 따라 정주
이주민 목회와 비정주 이주민 선교의
연계가 필요하다. 여섯째, 교회의 상황
과 규모에 맞는 종교권을 선택하여 사

역해야 한다(예: 소규모 교회는 기독교
권 이주민 대상, 오백 명 이상의 규모
는 이슬람권 이주민 대상).

ICDM의 비전

우리는 ICDM이 이주민 선교 사역자
를 훈련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생각
한다. 전 세계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으로 분산된 이주민이 약 10억 명에 이
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 2억 8천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국제적으로 이주하고, 7억 명 이상은
내부적인 실향민 및 탈향민이다. 사람
들이 세계 곳곳으로 이주함에 따라 선
교의 기회는 이전보다 더욱 풍부해졌
다. 그러나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역
량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해결하
기 위해 ICDM은 단일 및 다원적 사회

에서 특정 디아스포라 환경에 맞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ICDM은 2년에 한 번씩 2박 3일
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12명의 학자·
현장 사역자 등 디아스포라 전문가를
초청해 글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책
을 편집해 출간할 예정이다. 또한 3학
기 과정의 6개 과목을 만들어 한국의
협력 기독교대학과 신학대의 집중과정,
부전공과정으로 채택하고 교육의 기
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외에
서도 강사진을 구성하여 한국교회 및
한인 디아스포라가 밀집한 교회와 선
교 컨퍼런스에 ICDM 선교 및 디아스
포라 주제를 장려하고, 지역별 담당자
를 임명해 ICDM 글로벌 지역체를 조
직할 계획이다.

글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ICDM)
정리 이상영 목사(「해피투게더」 편집장)

아시아 지역의 디아스포라 상황



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유럽난민학습 공동체 대표

김성훈 선교사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김성훈 선교사의
저서 《마지막 시대의 모략: 디아스포라》
본문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
는 본서 4장의 ‘디아스포라 선교의 방향
과 도전II’ 내용을 요약하였다.

그동안 디아스포라와 관련한 연구
나 포럼이 이주자 동향을 우선적으로
다루어 오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일하
는 사역자들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사역의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
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더 많은 연구
가 필요한 시점에 다행스럽게도 최근

아시아 디아스포라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글들이 하나둘 나타
나고 있다.

웨스턴신학교의 에녹 완(Enoch Wan)은 <디아스포라 선교학(Diaspora Missiology)>를 출판했으며, 조이 티라(Joy Tira)와 함께 필리핀에서 ‘Institute for Diaspora Studies’를 운영하고자 마닐라의 ‘Alliance Graduate school’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외에도 <Scattered(2004)>, <Korean Diaspora and Christian Mission(2011)>등 다수의 디아스포라 관련 글이 복음주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 중 영국 옥스퍼드선교대학원(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의 교수로 있는 폴 우즈(Paul Woods)의

학위 논문 <이민의 신학화: 동아시아
에서의 다름과 제한성(Theologising
Migration: Otherness and Liminality in East Asia, 2015)>에 동아시아 디아스포라 상황에 관해 몇 가지 유익한 통찰과 이슈가 담겨있어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세계이민보고서(World Migration Report, 2008)에 따르면 전 세계 2억 여 명이 고국을 떠나 살고 있는데 그중 다수가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한시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 유럽은 중앙아시아를 포함하여 약 7천만 명, 북미는 4천5백만 명, 아시아는 2천5백만 명의 이주민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들이 한해 본국으로 보내는 돈은 대략 3천500억 불이며 이를 통해 본국의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컨대

2002년도에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본국에 보낸 금액은 GDP의 10%를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전 세계 노동인력의 3%가 이주노동자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30년이 되면 지구촌 노동인력의 40%가 인도와 중국 두 나라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디아스포라 상황은 선진 6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한국, 일본)으로 주변 국가의 이주노동자가 찾아오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비서구에서 서구로 이주했지만, 이제는 비서구에서 비서구로 이동하는 비율도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선교도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것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반추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SUFI CORE PROGRAMS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Empowerment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Sustainability

NATIONAL CAPITAL REGION

SAN ANTONIO QUEZON PROVINCE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수도권역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

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높은뜻광성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빌딩 5층(사무국)

T 02-717-5025

H www.gvks.org
다문화가정예배 주일 오전 11:00

동신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43(창신동)

T 02-764-1181~4

H www.dongshin.or.kr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이란인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인예배 주일 오후 1:30

동일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5길 21

T 02-2208-0811~3

H www.dongilch.com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부예배 주일 오후 1:30
필리핀부예배 주일 오후 1:30

부천온누리교회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자동차백화점 506호

T 010-5745-0121

H www.bc.onnuri.or.kr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안양제일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11-10

T 031-449-1195

H www.anyangjeil.org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은평성결교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3길 10

T 02-383-0071

H www.epehc.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2:30

올프렌즈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

H www.allfriends.kr
캄보디아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8:00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다문화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1:00

ISF(국제학생회)

서울 성동구 무학로2길 10길 6층

T 02-2051-7040

H www.isfkorea.orgsangdang.org

다하나국제교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8-39

T 02-2269-0654

H
다하나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토요일 오후 6: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

H
글로벌예배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 주일 오후 2:00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생수가흐르는숲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2 2층 the cafe HEIMz

T 010-8637-0333

H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안산제일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T 031-485-0955

H www.ansan1.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여의도순복음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5

T 02-6181-6154

H www.yfgcinternational.com
영어예배 주일 오전 9:00 / 11:00
영어청소년 주일 오전 11:00
영어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2:4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스페인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오륜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

H www.or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벵갈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한마음태국인교회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 1324-35

T 010-9874-4430

H www.thairuamjai.net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수요셀모임 수요일 오후 9:00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후 9:30

나섬교회(나섬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T 02-446-4195

H www.nasom.or.kr
영어권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새중앙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

H www.sja.or.kr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00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00
몽골예배 주일 오후 1:30
일본예배 주일 오후 1:00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

H www.central.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터민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승리다문화교회(승리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30

T 031-911-2289

H www.slmcc.or.kr
일요일예배(성인) 주일 오전 11:50
다문화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11:50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전 11:00
베트남공동체 주일 오후 2:00
다문화가정공동체 주일 오후 2:00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

H www.aicindonesia.co.kr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8:00

안산동산교회(WM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7(WM센터)

T 031-400-1111

H www.d21.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 예배

서울네이션즈교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17번지 3층

T 02-793-0193

H www.gfm153.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오름교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길 48 미래오피스 301호

T 010-3512-6701

H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송우벗사랑베트남교회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로루로 92 안경박사 3층

T 070-4416-5830

H www.kvim.hompee.com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5:00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T 010-9463-5857

H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암미선교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

H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열린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T 1661-4372

H www.yullin.org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열린열방선교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

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1:00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예수향남교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117

T 031-354-9221

H www.jesushn.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장로 38-4 무지개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

H
네팔어예배주일 오전 10:30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반포동)

T 02-2023-5600

H www.namseoul.org
북한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새생명태국인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

H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순복음열방선교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12 2층

T 032-874-8291

H
다문화통합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다문화주일학교 주일 오후 1:00

위다국제선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T 031-385-4680

H www.withee.org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2:30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30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458

T 032-424-8511

H www.hyo7.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5: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13(산곡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20(주안동)

T 032-527-1009

H www.juan.ok.kr
새터민 햇빛공동체 주일 오후 12:30
베트남주안교회 주일 오전 10:00
네팔주안교회 주일 오후 1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후 2:30
파키스탄어예배 주일 오후 4:00

하베스트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97-1 2층

T 010-2025-7123

H
다민족예배 주일 오전 11:30

안내 접수

문의
1215grace@naver.com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광탄열방교회(네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91 2층

T 010-9002-0033

H

네팔어주일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어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네팔어금요일예배 금요일 오후 8:00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

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순복음생명수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2층

T 010-9948-8212

H

러시아어 주일예배 오전 9:00 / 11:00

러시아어 주일학교 오전 11:00

러시아어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첫째 주 제외)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

H www.ainma.org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

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할렐루야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T 031-780-9500

H www.hcc.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전라권역

갯소리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T 062-375-0400

H www.wemwem.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목포주안교회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 061-272-4908

H www.mokpojuan.com

외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T 061-284-8899

H www.ds-ch.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장동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87

T 063-211-1597

H www.jangdong.org

모자이크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30,

수요일 오후 7:30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

T 063-274-3228

H www.antiochia.org

중국어예배주일 주일 오후 12:5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경상권역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2:00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T 052-242-1171

H www.upcweb.ne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T 010-7493-0080

H www.vfu.co.kr

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7: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교회/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2호

도서관: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1호

T 054-772-0691

H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권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지오션시티6로 2(명지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하단동)

T 051-209-0191

H www.hosanna21.com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GFC국제유학생센터(부산대)

금정구 금강로 279번길 78 금양원룸 지하

T 010-7726-1310

H

영어예배 토요일 오후 7:00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T 054-471-8650

H www.gumijeil.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오후 8:00,

주일 오후 1:00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어유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g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시티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T 070-8648-0668

H ulinch0229.wixsite.com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한국어-영어연합예배 매월 첫째 주일

오전 10:00

※ 이주민예배 안내는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라권(광주),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강원이나 제주 등 빠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 모임만 안내해 드립니다.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교회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충청권역

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T 043-288-2203

H www.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9:00,

오후 12:00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디아스포라신문** 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발행인 문창선 목사 · 편집인 문예은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문의: 010-7418-019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구독 및 광고문의를 환영합니다



구독 신청 QR



2023. 12. 9(토) 11시 ~ 오후 6시 ... 안산양무리교회

안산시 외국인은 세계 118개국에서 온 94,174명이며, 결혼이민자가 4,945명, 이주민교회는 70개에 이릅니다. 안산이 세계 선교의 중심지임을 믿는 교회들이 마음을 합하여 이주배경주민들을 환대하고 이주민교회와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열 번째 하루찻집을 준비하였습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익금과 후원 물품은 모두 이주외국인 교회에 전달합니다.

내용 Live Cafe - 찬양, 연주, 춤, 공연

음식 커피와 각종 차, 해물파전, 김밥, 샌드위치, 호두과자 등

계좌 새마을금고 9003-2362-4901-4 김희창

하루 찻집

안산 외국인교회와 이주민을 위한

One day live Cafe

When
2023년 12월 9일(토) 11시~오후 6시

Where
안산양무리교회(403-1721, 010-3072-8742)
단원구 광덕3로 97 대성빌딩 4층
(새마을금고 옆)

사랑나누기
10,000원

초대합니다

레위기 19:32~34

“이주 외국인을
자기 같이 사랑하라”

초청과 환대

Invitation & Hospitality

섞임과 누림

Blending & Enjoyment

Merry Christmas 🎵

“당신이 어디에서 왔든지
당신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이 기쁩니다.”

“No matter, where you are from,
we're glad you're our neighbor”

